

홈 > 뉴스 > 문화 > 문화일반

“기금 운영 투명성·효율성 필요”

도 문예진흥기금 관리 허술 문화예술인 실망
강원문화재단 전문가 부재 심각성도 지적

2008년 11월 18일 (화)

속보= 강원문화재단이 운영 중인 ‘도문화예술진흥기금’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(본지 11월 17일자 2면)에 대해 도내 문화예술인들은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나섰다.

특히 그동안 “기금이 넉넉지 않다”는 이유로 소액(하한 200만원~상한 500만원) 지원만 받던 지역 문화단체들은 2억4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안내도 될 세금으로 원천징수됐다는 소식에 허탈해 하는 표정이다.

전태원 춘천예총 회장은 “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관리와 운영에서 좀더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”며 “재단의 성격과 목적, 특성상 전문가에 대한 배려와 함께 꼭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이상훈 원주민예총 지부장은 “이번 일은 조직 전체가 느슨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”라며 “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단 구조가 효율화되고 재단이 자신만의 고유 영역을 발굴해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최윤필 춘천민예총 회장은 “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소중한 기금에 대해 너무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”며 “지역 예술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자금운동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심규만 강릉예총 사무국장은 “강원문화재단 내 전문가 부재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”이라며 “재단이 기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, 운영의 묘를 극대화시키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”고 말했다.

한편 강원문화재단은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, 도문예진흥기금 3년 이자수익분 16억원 중 2억4000만원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. <지방종합>

© 강원도민일보(<http://www.kado.net>)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